



김종길 / 본회 비상근 이사  
컴퓨터산업협의회 회장  
(주)삼보컴퓨터 사장

## 위기로 부터의 슬기로운 극복

을 한해에 있어서 무엇보다 놀라운 일이자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공산주의의 몰락이다. 앞서서 지난 해에 통일 독일이라는 대사건도 발생하였었다. 이렇듯이 우리는 급변하는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가고 있다.

양대 진영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일관해 온 세계의 구조가 소련에 범람한 자유화와 자본주의의 욕구에 의해 일시에 무너져버림으로써 그 주변국가들은 혼란에 빠져 갈피를 못잡고 있는 실정이다. 엄청난 위협으로부터 빠져나온 세계는 EC 시장 통합으로 볼 수 있듯이 경제블럭화 및 신보호주의의 강화 등으로 이제는 자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경제예측전문기관인 와튼경제연구소(WEFA)에 따르면 세계정세가 2차대전후 첫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회복도 훨씬 더디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렇듯이 세계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으로나 많은 변화를 겪은 한해였다.

아마도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을 일인데 우리는 어떠한가. 일찍 성급하게 터뜨린 샴페인에 취해 흥청망청거리에 아예 정신이 없었다. 이렇게 향락과 과소비에 빠져 있을 때 동남아 국가들의 추월작전은 훨씬 강화되어 우리의 목을 바싹 조르기 시작했으며, 내년도에도 꾸준한 성장을 이룩할 것이라고 한다.

컴퓨터산업만 보아도 역시 올해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세계적인 경제침체의 영향도 있었지만 그동안 뚜렷한 기술을 축적하지 못한 채 양적으로만 팽창한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수출부진, 제살 깎아먹는 내수의 과다 출혈 경쟁으로 다수의 작고 큰 업체가 도산하는 등 타 산업분야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정보사회의 발전이 주는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보산업육성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

고, 기업은 장기적인 마케팅 전략에 따른 투자개발과 사용자들의 요구를 한 발 앞서서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에 더욱 노력하여 침체에서 탈출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의 유명 시사지에 우리를 비웃는 글귀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자리를 제대로 찾을 때가 되었고 생각한다.

내년도 경제 전망 또한 그리 밝지 못하다. “허리띠를 다시 조르자”는 말이 경제사정을 절실하게 대변해 주고 있듯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막다른 벽에 부딪혔을 때 넘어가는 방법에는 벽을 부수거나 뛰어넘거나 아니면 사다리를 동원하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우리는 저마다의 능력을 제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우리는 제2의 도약이 가능하리라고 본다.